

## 2021년 제39회 마로니에여성백일장 산문 부문 심사총평

- 심 사 명 : 제39회 마로니에여성백일장 산문 부문
- 심사일자 : 2021. 11. 5(금)
- 심사위원 : 김덕희, 김소윤, 노지양, 라유경, 문부일, 문서정, 방재석, 신정근, 장미숙, 홍아미(10명, 가나다순)

제39회 마로니에여성백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과 다르게 시간,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온라인의 장점 덕분에 많은 예비 작가님들이 지원을 해서 산문부문에 총 4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사회 재난을 겪으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을 테고, 이번 백일장에 참가해서 마음에 담아놓은 이야기를 원고지에 담았으리라 추측합니다.

올해 글제는 ‘소통’, ‘감자’, ‘의자’, ‘적응’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창의성, 작품성, 완성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익숙한 글제를 자신만의 개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감동도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힘들거나 가슴 아팠던 경험을 일기장에 쓰듯이 풀어내는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문제의식, 깊은 사유,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간절한 의미를 담아야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탄탄한 작품이 됩니다. 독자들은 그 의미를 곱씹으며 자신의 삶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오십여 편이고, 그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을 대상으로 장점과 다소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심사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수상작을 결정했습니다.

장원 ‘할머니가 된다는 것’의 강점은 진정성, 간결한 문장력이었습니다. 육아를 하며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적응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수작 ‘소통의 바람 길’은 여자의 스산한 삶을 유려한 문장과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내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소통이라는 주제도 잘 담아냈습니다.

장려로 선정된 ‘작은 윤석의 흔적’은 주의력 결핍장애(ADHD)를 앓고 있는 남편과 소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성인 ADHD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면 그 증상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숲의 방식으로’는 숲을 보면서 엄마와 화해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잘 그렸고, 주제를 끌고 가는 힘과 구성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찮아 보이는 것들 모두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작은 소녀’는 상처받으며 자랐던 소녀가 훗날 내면과 소통하며 아픔을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요즘,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 글을 읽고 희망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입선작인 ‘60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는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긍정적인 자세가 돋보이고, ‘작약’은 한 편의 단막극을 보는 듯 생생하게 설렘을 전달했습니다. ‘엄마는 외계

인'은 비관주의자가 자녀를 위해 지구에 적응하려는 마음이 따스했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흥미롭게 보여준 '찐 감자에는 소금',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딸의 진심이 전해지는 '당신의 수신호를 기다립니다' 도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큰 울림을 줬습니다.

‘코로나19’ 특별 이벤트에는 100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병원으로 간다’는 코로나 병동에 지원한 간호사가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한 감동과 희망을 줍니다.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작품이 많았지만 모두 수상작으로 뽑을 수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상하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마로니에여성백일장을 글을 쓰면서 자신과 마주하고, 이 세상과 소통하는 멋진 축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